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게 된 국가대표 사격선수 XXX  
어느 날 주인공은 감옥 내에서 청소를 하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고 있는 장면을 봤다. 허겁지겁 그 자리에서 피해서 교도관에게 사실을 전달했지만 교도관은 아무 말없이 자리를 떴고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란도 없이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.   
며칠 후 자고 있던 주인공은 큰 소리가 나서 깼는데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람들끼리 어떤 것에 홀린 듯 서로 죽이고 있었다. 폭동 때문인지 모든 시스템이 고장 났고 구금되어 있던 방에서 나가니 바로 앞에 교도관이 죽어 있었다. 교도관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고 주인공은 그 권총을 집고 무슨 일인지는 생긴지는 모르겠지만 이곳에서 탈출해야겠다는 생각을 했다. 우여곡절 끝에 탈출에 성공한 주인공은 돌아다니다 집 한 채를 발견하고 들어간다. 그곳에는 괴물 같은 사람에 쫓기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고 주인공은 여자아이를 구출해줬다. 여자아이와 얘기를 나누던 중 여자아이의 부모님에게 음성메시지가 왔다. 음성 메시지에는 여자아이의 부모님이 사소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끊겼다.   
여자아이는 부모님이 걱정되어서 부모님이 여행 간 곳으로 주인공은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. 마침 목적지가 같은 곳이어서 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.